



2022.2.7.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2. 7

Vol. 38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2월 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허종호

- I. 행복의 과학적·학술적 개념 및 측정
- II.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특징
- III.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개요
- IV.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 V. 결론 및 제언

요 약

•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 물질적 부를 추구하던 개발성장 사회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국내외로 높아짐
- 이에 행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됨

• 행복의 학문적 및 측정상의 개념: 주관적 안녕감

- 행복이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개념으로 제안되면서 1990년대 들어 행복은 과학적 측정이 가능하며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주관적 안녕감은 1) 높은 삶의 만족감, 2) 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3)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로 구성되는 개념임
- 이와 더불어 행복의 측정에 삶의 의미나 목표 등을 반영하는 ‘유데모니아 안녕감’ 개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장점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8~10월에 걸쳐 전국 8천 가구 내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약 17,000여 명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OECD 주관적 안녕감측정 가이드라인」 및 「UN 세계 행복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측정에 초점을 맞춘 조사로, 심리 측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활용함
- 아울러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된 문항을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하였으며 번역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 면접과 전문가 자문을 거침
- 아울러 행복의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경제적 변수와 함께 삶의 질(사회적 관계망, 건강 상태 등) 등을 포함한 풍부한 변수를 함께 측정하고 있음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

- 전반적 행복감 질문(0~10점)에 평균 6.56점으로 2020년도의 6.83점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짐

•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짐

-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유데모니아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 모든 행복 관련 영역에서 수치가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음

- 특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도 더 크게 감소하여 행복 불평등이 심화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 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의 행복 수준이 낮았음
 - 행복에 있어서 취약집단이 전년도 대비 행복의 감소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향후 행복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근거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행복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근거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조사와 심층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I. 행복의 과학적·학술적 개념 및 측정

“데이터가 없다면 당신의 말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 에드워즈 데밍

□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 물질적 부를 추구하던 개발성장 사회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국내외로 높아짐
- 이에 행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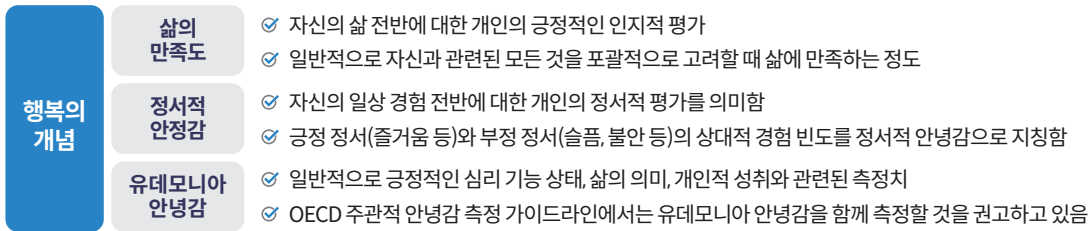
□ 행복의 과학적, 학문적 개념의 확립

- 1990년대 들어 행복은 과학적 측정이 가능하며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저명한 행복 심리학자인 Ed Diener는 1984년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소개함으로써, 행복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Diener, 2000)
 - 이전에는 행복의 개념을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하고 결정한 반면,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의 최종적 내용물(행복 경험)을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 최근 몇십 년간 행복과 관련된 학술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축적된 학술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측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 토대가 마련됨
 -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이 일 년에 약 1,900편 이상 국제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음

□ 행복의 학문적 및 측정상의 개념: 주관적 안녕감

-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1) 높은 삶의 만족감, 2) 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3)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를 추출한 개념임
- 이와 더불어 행복의 측정에 삶의 의미나 목표 등을 반영하는 ‘유데모니아 안녕감’ 개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함

[그림 1] 행복의 개념과 구성



- 현재 이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세 가지 요소는 활발한 학술 연구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행복의 대표적인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Diener, 2000), OECD가 출판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13)도 이 프레임을 기반으로 작성됨

□ 삶의 질과 행복 간의 개념과 측정상 차이

- 삶의 질은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내에서 삶의 질의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종합적 조사는 따로 없지만 통계청의 사회조사 등에서 얻어진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함
- 이에 비해 행복은 삶의 질 관련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정서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핵심임
 - 주관적 안녕감은 일반인들이 행복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높은 삶에 대한 만족과 높은 빈도의 긍정 정서 경험, 낮은 빈도의 부정 정서 경험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양한 집단과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됨
 -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독립적 측정이나 기존 활용 가능한 측정치가 부족함

II.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특징

□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함

- 한국은 경제 수준에 있어서 10대 경제 대국에 포함되었으나 행복에 있어서 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 160여 개국 중 50위를 기록함(Helliwell et al. 2021)
-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위해 기관 설립 초기부터 국민 행복을 측정하고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옴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됨
- 이에 현재까지 2020년 전국단위 6천 가구 대상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예비조사 및 2021년에 8천 가구 대상의 1차 본조사를 실시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장점_1: 심리 측정의 특수성 고려

-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 및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제안하듯이 주관적 안녕감 측정에 초점을 맞춘 조사의 수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심리 측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 조사와는 다르게 잠재적이고 내면적이며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혹은 질문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latent) 심리 상태를 측정해야 함
- 질문 도구들과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학술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삶의 만족도와 긍정, 부정 정서 경험, 유데모니아 안녕감 측정 도구들을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포함함
 - 가이드라인은 행복 측정을 위해 6가지 국제 표준 문항 모듈을 제안함

- 이는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대표 문항 집합인 ‘A. 핵심 지표(core measures)’ 모듈과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이 포함된 ‘B.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C. 정서(affect)’, ‘D.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 ‘E. 분야별 평가(domain evaluation)’, ‘F. 경험적 웰빙(experienced well-being)’ 모듈로 구성됨
- 아울러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설문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두 차례 인지 면접을 거쳐서 설문 문항을 확정함(박주언, 박선희, 백선미, 2020)

□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장점_2: 국제 비교를 고려

-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일 질문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연구 및 지표들과 비교를 위해서도 검증된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된 다문항 척도를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한국노동패널, 한국청소년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국책연구기관의 대표적 패널조사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나 일반적 방식과 달리 5점 척도로, 질문 방식과 측정 도구가 세계적 관례 및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과 상이함
- 이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제적 행복 측정의 기준인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복에 대한 필수모듈과 문항을 충실히 포함하는 동시에 영문 설문 문항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역본에 대한 인지 면접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침

□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장점_3: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풍부한 조사 문항

- 「OECD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은 행복과 관련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를 함께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기본적인 인구학적, 경제적(material conditions) 변수와 함께 삶의 질(예. 사회적 관계망, 건강 상태 등)에 관한 변수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OECD, 2013)
-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따른 주관적 안녕감 문항들을 질문에 포함하였으나 문항 수가 적고, 행복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포괄성이 떨어짐
-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들에 부합하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 조사는 「한국인의 행복조사」가 유일함
- 행복의 측정은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 사회의 위치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국가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III.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개요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8~10월에 걸쳐 전국 8천 가구 내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약 17,000여 명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적격 조사대상자 전원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방식을 병행함¹
 -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함(집계구: 확률비례크기계통추출, 가구: 무작위 추출, 가구원 수: 전수 추출)
 - 조사 시 요일별 할당을 적용하여 설문상 ‘어제’ 기준으로 ‘월-목’ 응답을 약 50%, ‘금-일’ 응답을 약 50% 정도 수집하도록 고려됨
 - 완료된 표본을 바탕으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 가중치, 벤치마킹 조정계수 가중치를 적용함
- 조사 완료된 가구는 총 8,162가구이며 표본 수는 1만 7,357명임

IV.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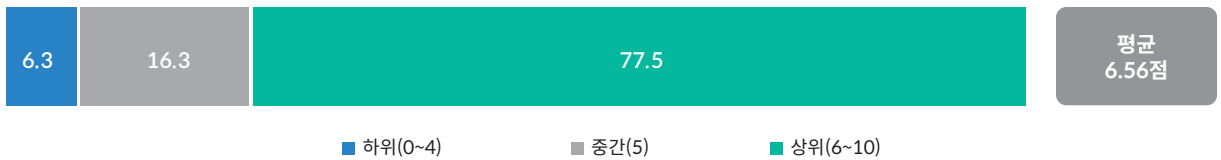
1. 전반적 행복감: 6.56점

-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반적 행복감 질문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6.56점임
 - 응답자의 77.5%는 6점 이상으로, 응답자의 6.3%는 4점 이하로 응답함

¹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기관의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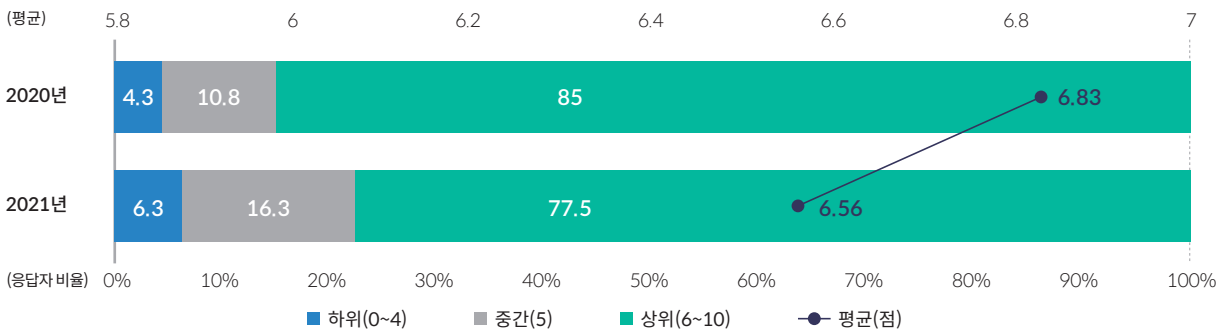
[그림 2] 전반적 행복감 설문 결과(2021년도)

(단위 %, 표본수=17,357)



◦ 전년도² 전반적 행복감 6.83점과 비교하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그림 3] 전년도(2020년)와 비교한 전반적 행복감 설문 결과



◦ 연령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는 한국 특유의 역U자형을 뚜렷하게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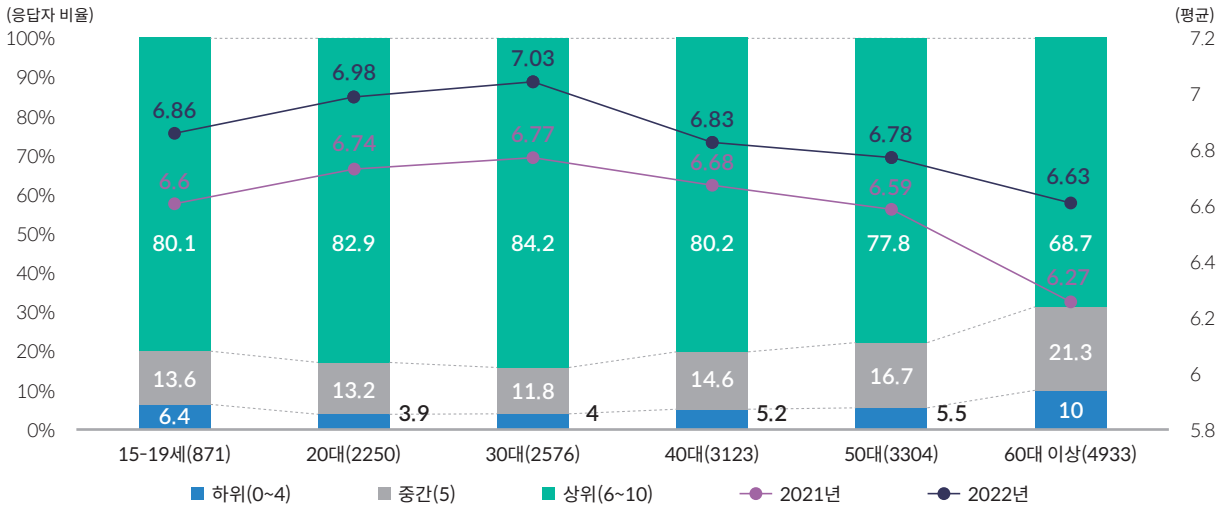
- 30대가 평균 6.77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6.27점으로 가장 낮음(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20~40대 > 10대, 50대 > 60대 이상)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행복의 감소를 보임

- 40대가 가장 적은 행복 감소폭(평균 0.15점)을 보인 반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평균 0.36점)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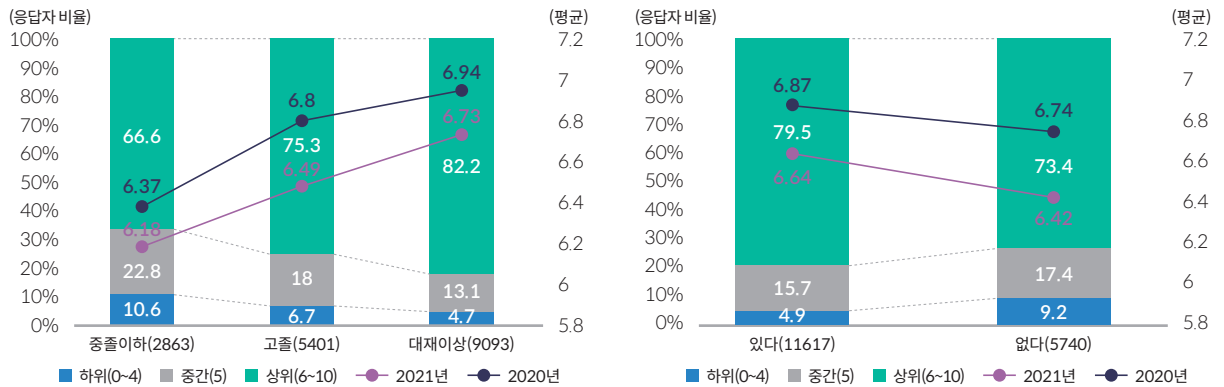
² 2020년도 「한국인의 행복조사」가 6천 가구로 표본 수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표본추출과 조사방식, 가중치 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비교 가능함

[그림 4] 연령대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 설문 결과(2021년도)



- 전반적 행복감은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6.18점, 고졸: 6.49점, 대재 이상: 6.73점), 직업이 있는 집단(6.64점)이 직업이 없는 집단(6.4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고졸 집단이 평균 0.31점의 감소폭을, 무직 집단이 평균 0.32점의 감소폭을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의 감소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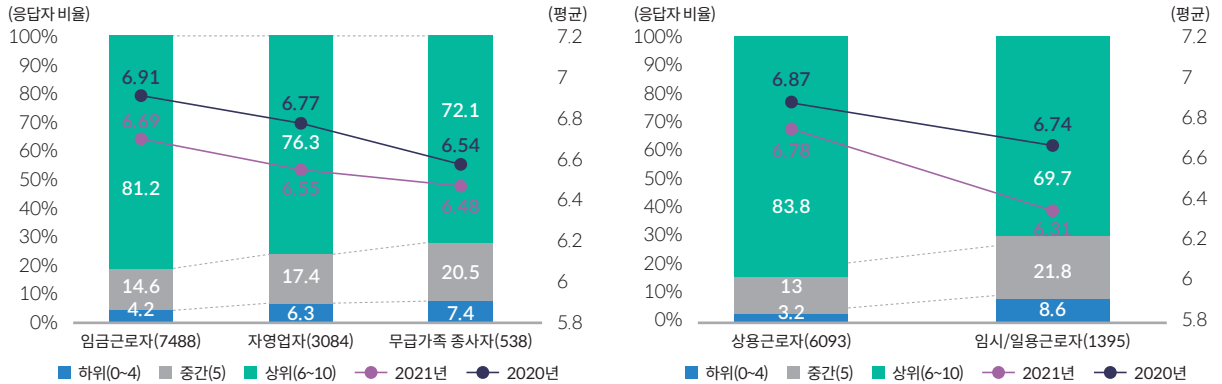
[그림 5] 학력(좌)과 직업 유무(우)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격차(2021년도)



- 전반적 행복감은 직업이 있는 집단 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를 보임
 - 종사상 지위에 따르면, 임금노동자(6.69점)가 자영업자(6.55점) 및 무급 가족종사자(6.48점)보다 높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6.78점)가 임시/일용근로자(6.31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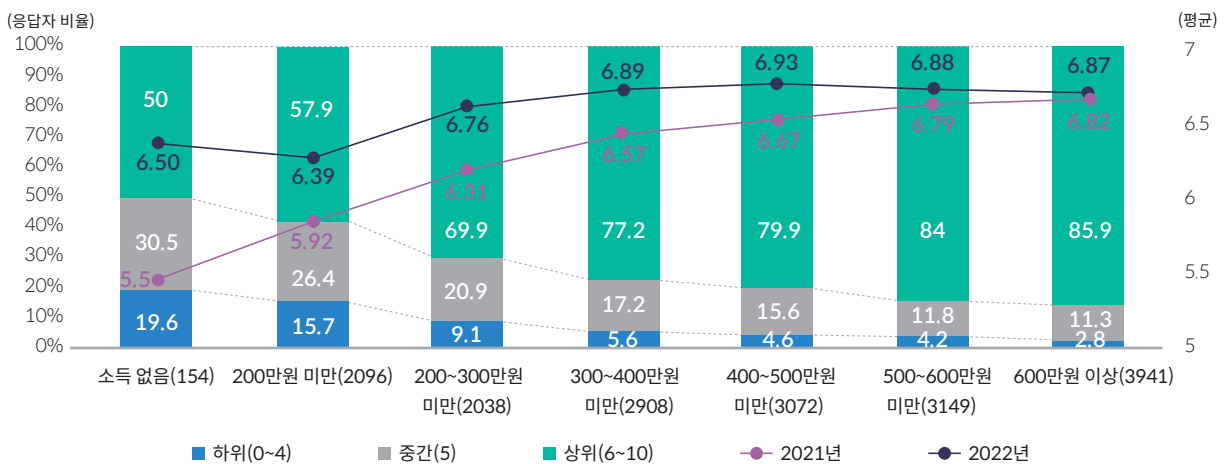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이 평균 0.22점의 감소폭을, 임시/일용근로자 집단이 평균 0.38점의 감소폭을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의 감소가 컸음

[그림 6] 종사상 지위(좌)와 고용형태(우)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격차(2021년도)



- 전반적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그 이하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음(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소득 없음 > 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 300만원 이상)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소득없음: 평균 1.00점 감소, 600만원 이상: 평균 0.05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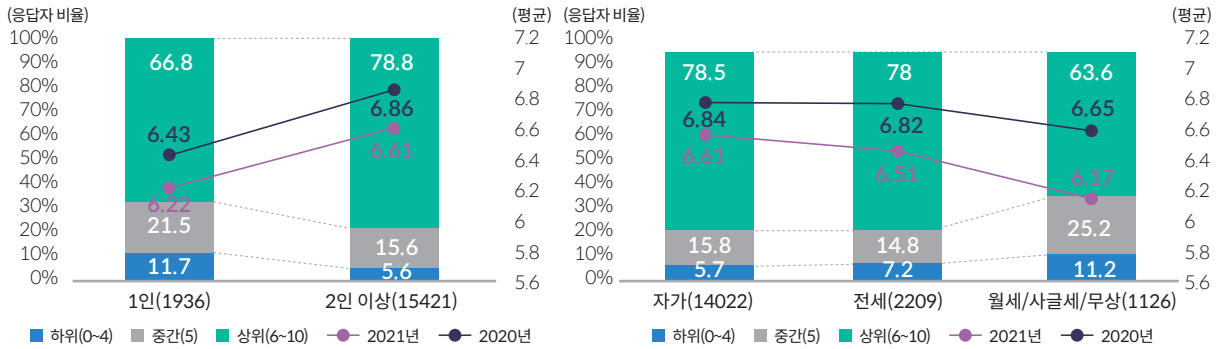
[그림 7] 전년도(2020년)와 비교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격차



- 전반적 행복감은 1인 가구 집단(6.22점)이 2인 이상 가구 집단(6.61점) 보다 낮았고, 주거 형태에 따르면 월세/사글세/무상 집단(6.17점)이 자가 및 전세 집단(6.61점, 6.51점)이 보다 낮음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가구 집단이 각각 0.21점 및 0.25점의 감소폭을, 주거 형태에 따라서는 월세/사글세/무상 집단이 0.48점의 큰 감소폭을 보임

[그림 8] 가구원수(좌) 및 주거형태(우)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의 격차(202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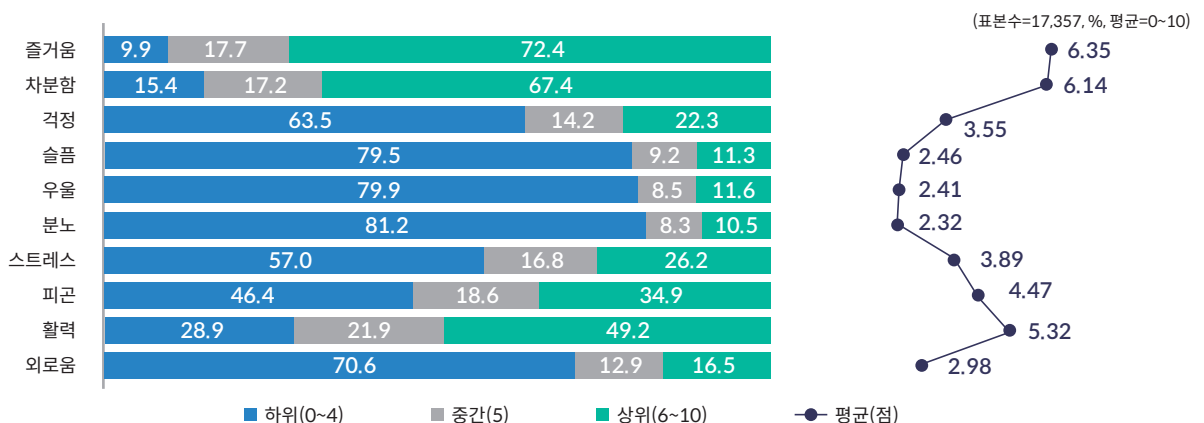


2. 정서

□ 어제³ 10가지 감정 각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묻은 결과, ‘즐거움’이 6.35점으로 가장 높음

- 뒤이어 차분함(6.14점), 활력(5.32점), 피곤(4.47점), 스트레스(3.89점), 걱정(3.55점), 외로움(2.98점), 슬픔(2.46점), 우울(2.41점), 분노(2.32점) 순임

[그림 9] 어제의 감정에 대한 설문 결과(202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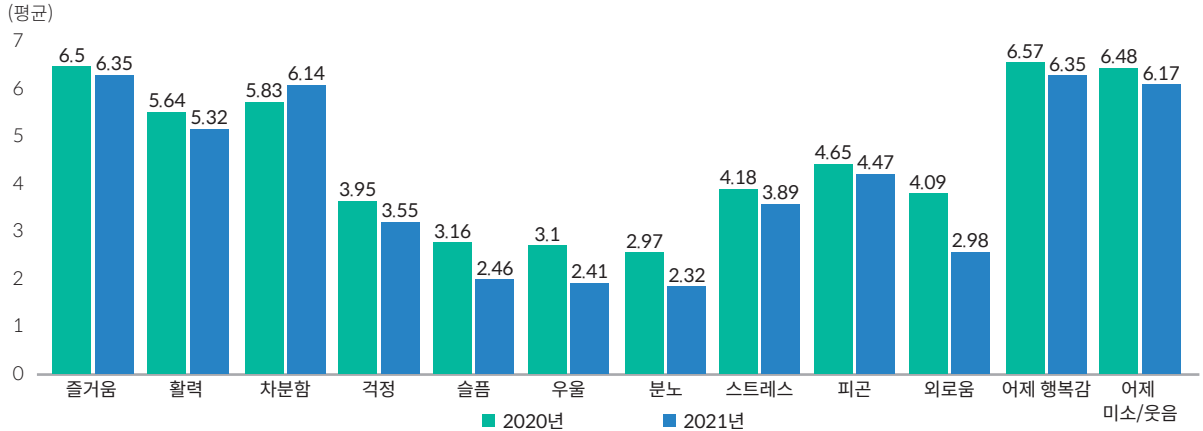


3 OECD의 「주관적 안녕감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서의 경우 어제의 회상을 통해 측정함

◦ 전년도(2020년)와 비교하면 차분함만 다소 상승하고 나머지 감정은 감소함

- 즐거움, 활력, 행복감, 미소/웃음 등 긍정 정서가 약 0.1~0.3점 감소하였고, 걱정, 슬픔, 우울, 분노, 스트레스, 피곤, 외로움 등 부정 정서는 약 0.4~1.0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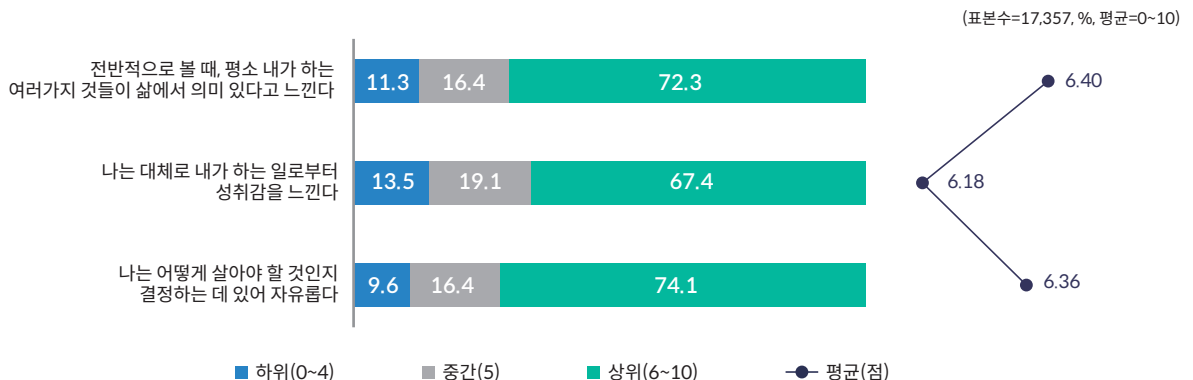
[그림 10] 어제의 감정에 대한 전년도(2020년) 결과와의 비교



3. 유데모니아 안녕감: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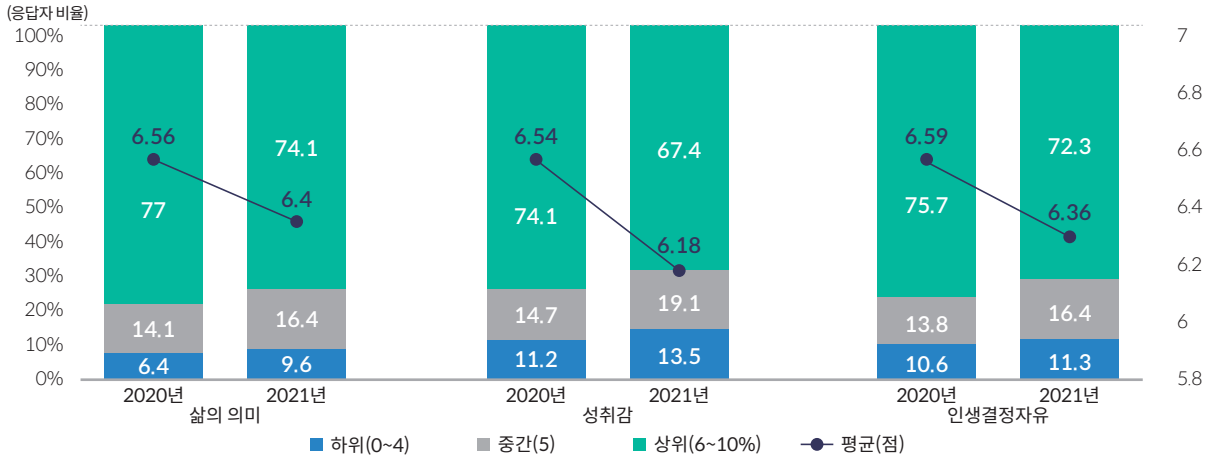
□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서 평균 6.40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서 평균 6.18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는 항목에 대해서 평균 6.36점으로 나타남

[그림 11]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에 대한 2021년도 설문 결과



- 삶의 의미(6.56점→6.4점), 성취감(6.56점→6.18점), 인생결정 자유(6.59→6.36점)으로 전년도(2020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행복 수치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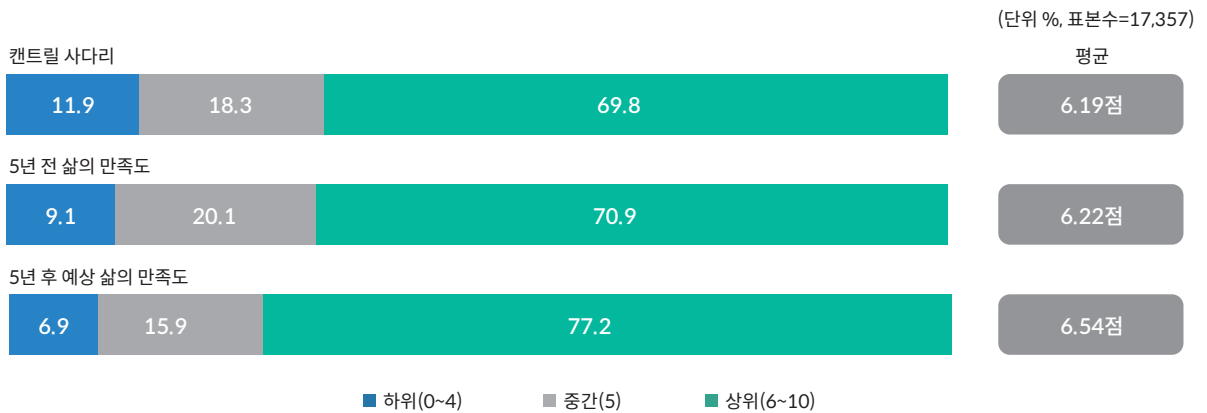
[그림 12]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문항에 대한 전년도와의 비교



4.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⁴에 평균 6.19점, 5년 전 삶의 만족도는 6.22점, 5년 후 예상하는 삶의 만족도는 6.54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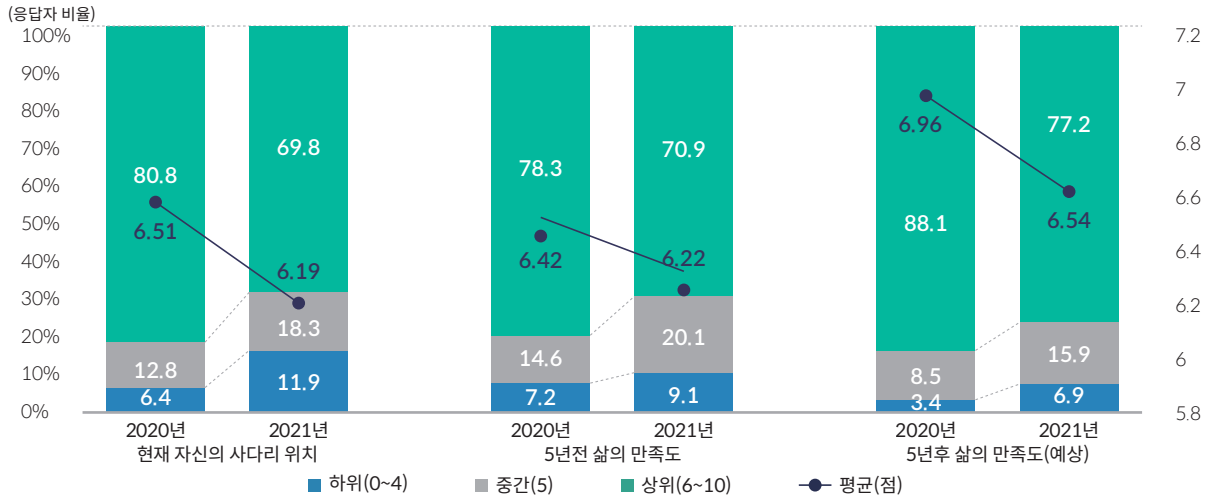
[그림 13]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및 5년 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2021년도 설문 결과



4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문항: 삶을 사다리에 비유하여 사다리의 꼭대기 칸을 최상의 삶(10점), 맨 아래 칸(0점)을 최악의 삶이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묻는 문항

- 현재 사다리 위치(6.51점→6.19점), 5년전 삶의 만족도는(6.42점→6.22점), 5년 후 예상 삶의 만족도(6.96점→6.54점)으로 나타나 전년도(2020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함

[그림 14]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문항 결과에 대한 전년도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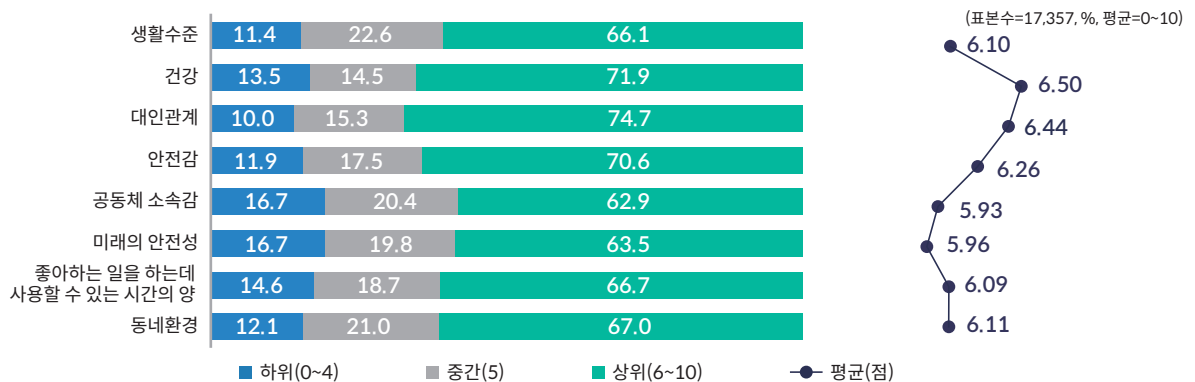


5. 영역별 만족도

□ 8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건강’이 6.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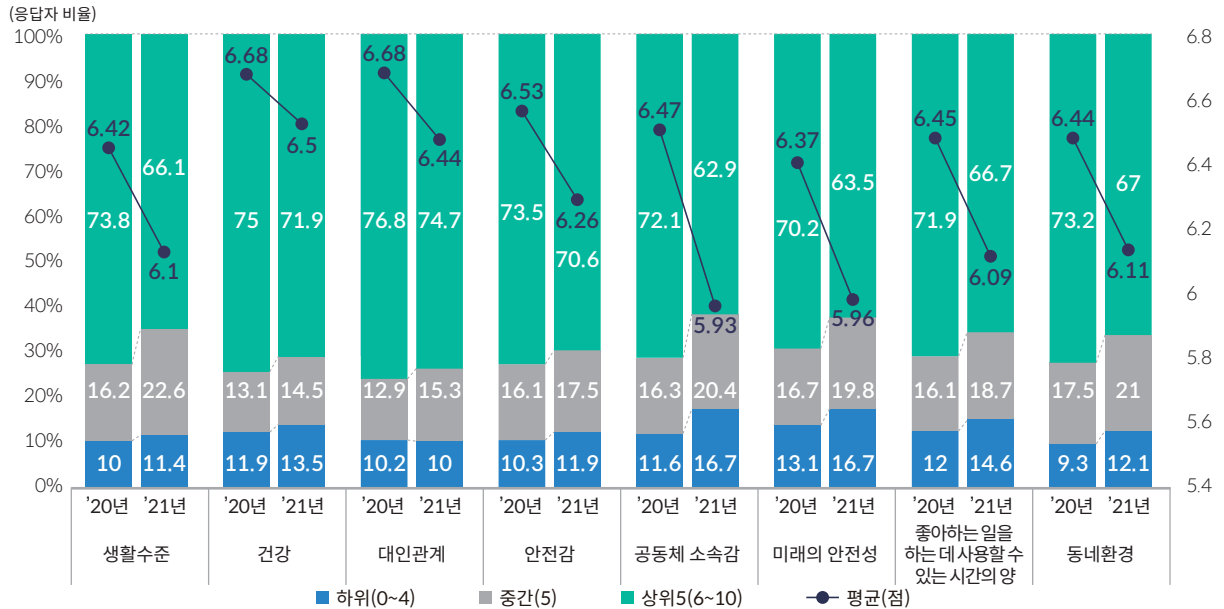
- 이어서 ‘대인관계’(6.44점), ‘안전감’(6.26점), ‘동네 환경’(6.11점), ‘생활 수준’(6.10점),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6.09점), ‘미래의 안전성’(5.96점), ‘공동체 소속감’(5.93점)의 순임

[그림 15]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2021년도 설문 결과



◦ 전년도(2020년)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평균 약 0.2~0.5점이 일관되게 감소함

[그림 16] 전년도와 비교한 영역별 만족도 결과



V. 결론 및 제언

□ 코로나 2년 차에 해당하는 2021년의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임

□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행복이 낮아짐

◦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유데모니아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 영역에서 모두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음

□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에 있어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밝혀진 행복의 취약집단, 즉,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지면 한계 상 결과 생략)의 행복 수준은 2021년에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특히, 기존 행복 취약 집단이 전년도 대비 행복도 더 크게 감소하여 불평등이 심화됨

- 안타깝게도 기존의 행복 취약집단이 전년도 대비 행복의 감소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향후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행복 취약집단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근거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조사와 심층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민의 행복 수준과 행복 취약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양질의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한 심층 연구와 입법적 대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박주언, 박선희, 백선미 (2020). 한국인의 행복조사 조사표 개발 연구: 인지면접, 통계개발원
- 허종호, 민보경, 이채정, 이상직 (2021). 2021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국회미래연구원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Lucas, R., Schimmack, U., & Helliwell, J.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Jeffrey Sachs, and Jan-Emmanuel De Neve, eds.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